



『심층 이슈』

2011년 - 프랑스, 그리고 한국 만화

(박홍진/프랑스 Kantik/Samji사 대표)

프랑스에 한국만화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초기부터 이미 이 시장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일본 망가와 망가 애호가들의 수많은 견제를 받아온 한국 만화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느덧 프랑스의 아시아 만화 시장에서 작게나마 한 흐름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통의 유럽만화(프랑스에서는 주로 BD Bandes dessinees로 표기),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영웅물 중심의 미국만화 (주로 Comics라고 표기), 그리고 일본 망가로 대표되는 아시아 만화(주로 Manga로 표기)까지 전 세계의 만화가 모여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프랑스 시장이며, 유럽의 문화 중심지라는 프랑스인들의 자긍심에 걸맞게 거의 대부분의 만화는 프랑스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후 유럽 다른 나라의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만화도 2003년 프랑스에 진출하면서부터 불어 번역본을 읽고 독일이나 이태리, 스페인 등 주변 국가들이 한국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거대한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머나먼 프랑스에 발을 내딛고 선 지 8년 째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만화가 프랑스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떤 만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의 아시아 만화 시장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자.

1. 한국 만화를 출판하는 프랑스 출판사

2003년 한국 만화가 '도깨비'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진출할 때만 해도 프랑스 전체를 통틀어 아시아 만화를 출판하는 출판사는 5, 6개사에 불과했다. 물론 이미 '드래곤볼'이라는 공전의 히트작이 있었거니와 '골도락'(그랜드아저), '아키라' 등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들로 인해 일본 망가는 프랑스에 15년 이상 한국 만화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일본 망가의 골수 애호가들이 점차 자라 하나의 문화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망가'는 일부 아는 독자들이나 찾아 읽는 비주류 문화였으며, 그 때문에 망가 애호가들은 스스로 '선지자' '인양' 행세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는 당연히 일본 것이어야 하며, 또 일본 것이 아닌 '망가'는 '유사품'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 망가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의 만화는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4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만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한국 만화의 등장으로 인해 아시아 만화의 다양성에 프랑스 독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현재 프랑스에서 아시아 만화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살펴보자.

표1. 프랑스의 아시아 만화 출판사

출판사명	한국만화출판	일본망가출판	중국만화출판	비고
Asuka		o		한국 만화 출판 중단
Booken	o			일본 망가 출판 고려
Casterman	o	o		작가주의 만화만 출판
Clair de lune	o	o		
Delcourt		o		
Doki Doki		o		한국 만화 출판 중단
Iku comics		o		
Imho		o		한국 만화 출판 중단
Kana		o		
Kami	o	o		
Kaze Manga		o		
Ki-oon	o	o		
Kurokawa		o		
Panini Manga		o		한국 만화 출판 중단

Paquet	o	o		
Pika		o		
Samji	o			
Semic	o	o		
Soleil		o		한국 만화 출판 중단
Taifu comics		o		
Tonkam		o		
Xiao Pan			o	
22개사	8개사	19개사	1개사	5개사가 한국 만화
				출판을 중단함

* 아시아 만화를 출판하는 출판사의 수는 모두 39사에 이르나 그 중 비교적 다수의 출판을 하는 출판사만을 정리하였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아시아 만화를 출판하는 주요 프랑스 출판사는 모두 20여개 사이며 이중 일본 만가만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수가 13개사, 일본 만가와 한국 만화를 모두 출판하는 회사의 수는 6개사 등 전체 아시아 만화 출판사 중 무려 86%에 달하는 출판사가 일본 만가를 출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만화를 출판하는 출판사는 겨우 8개사에 불과하며 그나마 어느 정도 출판 종수를 유지하고 있거나 꾸준히 타이틀을 내고 있는 출판사는 Booken (4타이틀), Casterman(8타이틀), Clair de Lune(5타이틀), Ki-oon(4타이틀), Samji(24타이틀) 등 5개 사에 불과하다. 더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바로 일본 만가와 한국 만화를 같이 출판하던 출판사 중 5개사가 한국 만화 출판을 중단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만화 출판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판매 부진이다. 또 일본에 비해 출판되는 종수가 상당히 부족한 한국 만화 시장의 작품들을 많은 수의 출판사가 짧은 시간 내에 경쟁적으로 출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타이틀들이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출판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출판을 중단했다.

이러한 일본 만가 편중 현상은 출판된 작품 수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0년 한 해 동안 출판된 아시아 만화는 모두 1477권 (종수로는 496종)이며 이중 1355권이 일본 만가, 한국 만화는 106권, 중국 만화는 14권이다. 특히 일본 만가 중 블록 버스터를 출판하는 상위 3개 출판사(카나 Kana, 글레나Glena, 델쿠르Delcourt)의 아시아 만화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고 있으며 상위 14개 레이블로 그 범위를 넓혀보면 시장 점유율은 무려 98.6%에 이른다. 즉 나머지 25개 출판사의 시장 점유율의 총합이 겨우 1.4%

인 것이다.

(자료 참조 :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ACBD) 2010년 연간 보고서)

2. 프랑스에서 출판되는 한국 만화

프랑스 만화 시장은 전통적으로 소년, 소녀 구분 없이 '환타지'와 '유머'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서 출판되는 타이틀의 많은 부분이 소년 만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출판되고 있는 한국 만화 역시 대부분 이러한 환타지 장르에 편중되고 있다.

물론 역사물이나 작가주의 만화 역시 출판되며 작가주의 만화의 경우 도서전에서 수상을 하고 있으나 시장을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그 판매 부수 역시 그리 많지 않다.

한국 만화 출판은 크게 SEEBD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SEEBD사는 단독으로 당시 전체 아시아 만화 시장의 약 10%에 달하는 매출을 한국 만화를 통해 실현, 프랑스에서 출판되는 한국 만화의 90% 가까운 약 400권 이상의 타이틀을 5년 동안 출판하였고 한국 만화만으로 구성된 잡지도 출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8년 문을 닫았다. 그 후 한국 만화 출판 종수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현재 프랑스에는 대략 49종의 한국 만화가 현재 출판 중이거나 곧 출판될 예정이며 이중 24종을 제외한 25종의 타이틀들이 소년 만화이다. 또 소년 만화 중 환타지 물은 13종, 무협물은 7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만화 전체 출판 종수 중 비교적 대비 소년 만화의 비중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작가주의 만화의 출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업 만화만을 놓고 봤을 때는 소년 만화가 62%로 나타난다.

반면 순정 만화의 경우 학원물이 5종, 환타지가 4종이며 최근 순정 만화 출판 종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그중 BL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프랑스 전체 아시아 만화 시장에서 BL물의 출판 종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학원물의 경우 국내 타겟 독자층과 현지 독자층과의 연령대 차가 있어 최근에는 거의 출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표 2는 프랑스 주요 출판사별 한국 만화 출판현황을 표로 작성해

본 것이다.

표2프랑스에서출판되는한국만화

출판사	Booken	Clair de lune	Casterman	Ki-oon	Paquet	Samji
타이틀	브레이커	하나미	위대한 캣츠비	헬블레이드	임걱정	완전무결하게 사로잡히다
	귀	월요일소년	타이밍	밥티스트	빨간 자전거	마탄성자
	핑	마비노기	로맨스	라 모스카	기생 이야기	리젠드
	야녀 백동수	마이안전기	구르플버서난달처럼	위치헌터		마제
		왕자님에게 키스를	아파트			마틴 & 존
			바보			궁
			Catz			메탈하트
						유레카
						호리컬렉터
						절정
						천행기
						몽환백서
						루어
						언밸런스 언밸런스
						시화몽
						러브팝
						치료
						단구
						여왕의 기사
						플라티나
						용비불패
						베리타스
						마법병단
						에그리나
						스페이스 차이나 드레스
						카스텔라 레시피

3. 인기있는 한국만화

프랑스에서 한 타이틀의 정확한 판매 통계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다수의 출판사들이 인쇄부수를 기준으로, 더욱이 약간 수치를 부풀려 판매 통계

자료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누적 통계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만화는 '천추' (약 2만 5천부 내외)다. 그 외 판매 실적이 좋은 작품으로는 '프리스트', '유레카', '마제' (각각 약 1만 5천부) 등을 들 수 있으며 (하지만 이 중 천추와 프리스트는 작가의 작품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작품으로는 '위치헌터'(약 8천부) 정도가 눈에 띄이는 수준. 순정만화 부문에서는 초기 '모델'(9천부)이 선전한 이후 별다른 작품이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BL류의 선전에 힘입어 '완전무결하게 사로잡히다'(약 5천부), '절정'(약 5천부) 등이 비교적 좋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나마 절정 역시 작가의 작품 활동이 중단된 상태) 그러나 일본 망가 출판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열악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4. 인기있는일본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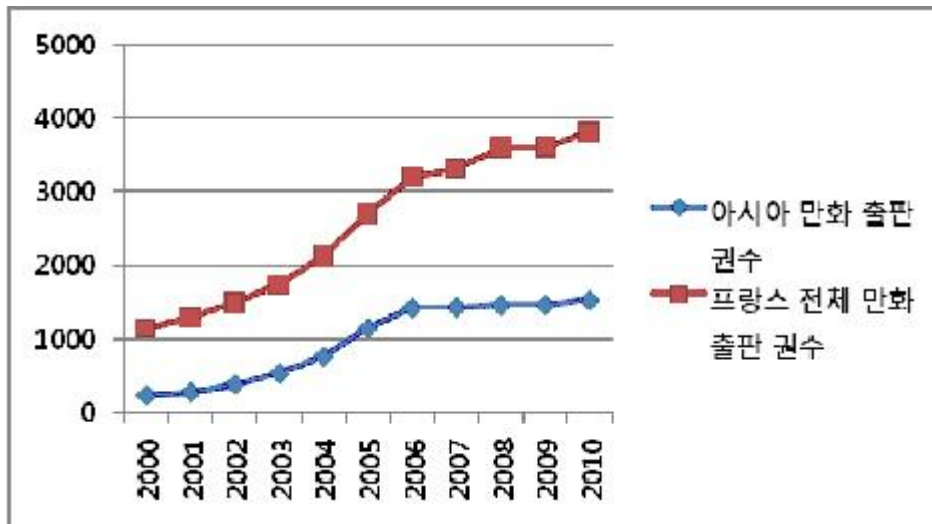
일본 망가의 인기 순위는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른바 블록버스터들이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출판 순위를 보면 1위에서 6위까지를 '나루토'(각각 25만부)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원피스(9만부), '페어리 테일'(8만부), 강철의 연금술사(7만 5천부), 블리치(6만부)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 순정만화 쪽에서는 다웃(4만부), 스위치 걸(3만부) 정도가 있으나 출판부수가 10만부에 육박하던 나나의 인기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프랑스의아시아만화시장의변화

프랑스 만화 출판 시장에서 아시아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겨우 20%에도 미치지 못하던 수준에서 2004년 35%로 크게 증가, 2005년에는 무려 42%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매년 41% 정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2010년에는 39%로 다소 하락하였다. 또 '나루토'나 '원피스' 등 블록버스터의 판매 역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다.

표3프랑스만화총출판권수대비아시아만화출판권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만화 출판 권수	227	269	377	524	754	1142	1418	1428	1453	1460	1522
프랑스 전체 만화 출판 권수	1137	1292	1494	1730	2120	2701	3195	3312	3592	3599	3811



(자료 : ACBD 2010 연간 보고서)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아시아 만화 시장의 축소 혹은 붕괴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빠른 출판 주기 (2달에 1권씩 후속권 출간)로 인해 많은 양의 책이 출판되어 더 이상 출판할 만한 책이 부족한 점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독자들이 다양한 타이틀을 시험적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확실한 책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겨우 9 종의 타이틀이 전체 아시아 만화 시장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좋은 증거라 하겠다. 오히려 각 서점에서는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출판되는 아시아 만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아시아 만화 코너를 늘려가는 추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 1주일 이내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반품을 해버리며 일단 빠른 반품을 했던 작품에 대해서는 후속권 주문을 기피할 정도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빠르게 어필하지 못한 작품은 점점 더 판로를 잃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아마존'이나 '프낙'과 같은 온라인 서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인터넷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망의 부족 현상을 메워줄 정도는 아니다. 일본 만가에 비해 독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한국 만화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들어 크게 떨어진 것 역시 이러한 제반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웹진 형식의 인터넷상 만화 구독은 특히 애플을 중심으로 한 앱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시도의 움직임은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관계로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오히려 일본 출판사 측에서는 인터넷 구독에 필요한 라이선스 허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려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한국 만화가 먼저 파고들어야 할 시장이 아닌가 판단되기도 하는데 역시 누가 투자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그리고 수익이 과연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망가 스타일'의 작품이 현지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 프랑스의 젊은 작가 혹은 신예 작가군에서 아시아 만화 스타일의 편집과 연출의 영향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출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직은 아마추어에 가까워 소수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을 뿐이다.

6. 프랑스 출판사들의 한국 만화에 대한 접근 변화

프랑스 출판사들에 있어서 한국 만화는 더 이상 '일본 망가보다 라이선스가 싸고 비슷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 관심이 가는' 시장이 아니다. 많은 출판사들이 한국 만화 판매를 통해 손실을 입었고, 또 인기를 끌던 타이틀들이 작가의 창작 중단으로 인해 결말을 맺지 못한 상태로 중단된 경우가 많아 한국 만화에 대한 독자들의 이미지 또한 그리 좋은 편도 못된다. 일부 출판사들이 한국 만화를 일본 망가인 듯 시장에 내놓는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다. 최근 2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한국 작가의 프랑스 진출이다. 프랑스 시나리오 작가의 작품을 받아 한국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일정액을 지불하고 그림 저작권을 양도받는 '매절' 형식이 많아 작가들의 주도적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나마 판매가 두드러지게 좋았던 작품이 없어 최근에는 그도 약간 시들해지는 분위기이다.

더구나 국내 자체적으로 출판시장의 침체로 창작 만화 출판을 많이 줄어들어 구매 대상이 되는 작품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한국 만화는 만화를 지원해 주는 다른 영상 매체 콘텐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 망가에 비해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아시아 만화 시장에 진출하는, 그래서 '좋은 일본 망가 ±

를 구하지 못하는 출판사가 아니고서는 이전처럼 한국 만화를 다량 구매하는 프랑스 출판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한국 만화는 2006년을 기점으로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프랑스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유럽 시장을 잃는다는 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